

雇傭職業能力開發研究  
第19卷(3), 2016. 12, pp. 31~55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 고교 진로교육 경험이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대학 진학 이후의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최정운\* · 신혜숙\*\*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의 진로교육 경험과 대학진학동기, 그리고 대학진학 이후의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교자료와 수능성적, 그리고 대학생 자료를 포함하는 ‘한국중단교육연구 2005’의 6~7차 자료를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입학 전 고등학교에서 참여한 진로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수록 대학진학동기가 능동적이고 구체적이었는데, 이러한 관계는 부모학업지원과 학생성별, 수능등급에 따른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유효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적응에 대한 진로교육의 영향은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하는 간접 효과 이외에 직접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진로교육의 효과는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한 간접 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대학진학동기는 대학학업성취도에 대한 진로교육의 효과를 완전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 재학 중의 진로교육 경험을 통해 학생은 대학진학의 필요와 목적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여 대학진학동기를 공고히 하고 대학진학 이후에도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주제어 : 고교 진로교육 경험, 진로교육 중장기 효과, 대학진학동기, 대학적응, 대학학업성취도

투고일: 2016년 03월 10일, 심사일: 05월 16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23일

\* 교신저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jychoi@kedi.re.kr)

\*\* 공동저자,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teatime02@gmail.com)

## I. 서론

세계 1위의 대학진학률이 말해 주듯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진학은 국민적 관심사이다. 대학진학이 직업 선택과 소득, 더 나아가 결혼 등 개인의 삶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 대다수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생각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학진학이 이루어다보니 흥미와 적성, 중장기적인 진로 계획보다는 대학 입학 시점에 임박하여 성적에 맞추어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김봉환·김병석·정철영, 2000).

그런데 이처럼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학진학의 의미를 이해하고 제대로 목표를 설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는 취업난과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가 긴요하다는 점, 교육적으로는 입시 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학력이 아니라 적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진로교육 강화가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장석민, 2013).

진로교육을 강화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2010년 당시 노동부,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가 “2010년 진로교육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고, 2013년 교육부의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양종국, 2013). 또한 박근혜 정부가 학생의 행복한 학습과 미래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도입한 자유학기제에서도 진로교육 활성화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이지연, 2013). 학교 진로교육이 아직까지는 성적에 기반을 둔 진학 지도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박소영·김지연·김상희·정단비, 2014) 현장체험활동 다양화, 진로 관련 선택 교과 확산,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등 교육과정 전반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김승보·진미석·한상근·이지연·이윤진, 2013).

주목할 사항은 학교 진로교육이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선택’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학교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 진로교육이 공교육 정책의 핵심 주제로 주목받게 되고 또한 교육 현장에서 자리 잡아 가면서 관련 연구도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박소영 외 2014; 박정희·김홍석, 2009; 어윤경·변정현, 2013; 정소영·이한주, 2014; 정지은·주홍석·정철영, 2013; 주현준·이쌍철, 2013). 진로교육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교육 동향 및 정책 방안(양종국, 2013; 이지연·최동선, 2005; 장석민, 2001; 정철영, 2002), 진로 관련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성 분석(송인섭·김봉환·조대연·임언, 2005), 진로준비행동·진로결정·진로성숙·진로자기효능감 등 사회심리적 요인을 활용하여 개인의 진로 발달 특성 규명(김소영·홍세희, 2013; 박신영·이동형, 2013, 박정희·김홍석, 2009)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그간 학교 진로교육을 주제로 다룬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으며 특히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을 활용한 경험연구는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정지은 외, 2013).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진로교육과 진로 행동,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등 다양한 진로교육의 성과요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자들은 진로교육의 중장기적 효과 검증 부족을 학교 진로교육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하였다(신희경·이종승, 2007; 정지은 외 2013; 주현준·이쌍철, 2014).

학교 진로교육의 중단 효과를 탐색함에 있어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 등 대학생화에 대한 학교 진로교육의 영향은 주목해야 할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진로교육의 목표는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 개척 과정에서 맞이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적응을 지향한다(장석민<sup>1)</sup>, 2013: 2~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교 진로교육에 힘입어 학생이 '진로선택'의 측면에서 대학진학의 의미와 목표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이는 학교 진로교육의 중요한 효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약 80퍼센트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또한 평판도가 더 높은 대학진학에 대한 압박 때문에 많은 학생이 진로 탐색 및 결정을 대학진학 전에 하지 못하며 이는 대학적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박선희·박현주, 2009; 박신영·이동형, 2013: 24에서 재인용), 대학진학 이후의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 등을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변수로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 진로교육과 대학적응 및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간 관계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1) 직업교육에서 출발한 진로교육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면서 진로교육은 전 생애적 차원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능력과 소질, 태도, 가치관 등을 계획적으로 기르는 것을 포함한다(장석민, 2013: 2~4).

탐색 주제 중 하나는 학교 진로교육이 대학적응 및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이다. 학교 진로교육이 학생의 어떤 측면에 변화를 주어 대학진학 이후 적응 등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사항인데 이와 관련하여 학교 진로교육이 구체적인 대학진학동기 형성에 기여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가 다양한 정보와 체험, 자기성찰을 통한 목표의식 구체화임을 감안할 때, 충실한 학교 진로교육은 대학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와 대학에서의 학업 목표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능동적이며 구체적인 대학진학동기 형성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대학적응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제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진로교육과 대학진학동기, 대학 적응 간의 관계에 관한 학문적 탐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신희경·이종승, 2007). 다만 일부 연구자가 고등학교 시기의 능동적인 진로탐색이 대학진학 이유와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것이 대학적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김준엽·박소영·신혜숙·민병철, 2013; 박승민·변복수, 2014). 예컨대 김준엽 외 (2013)는 학생부 전형 또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 적응이 일반전형 입학자에 비하여 높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학생부전형 또는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과로서 간주하면서 비교적 목적지향적인 진로탐색 과정을 거쳐 대학 진학을 준비해온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대학입학동기를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대학적응이 좀 더 수월해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 경험을 통해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진학의 의미와 대학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구체화하는 등 대학진학동기를 공고히 하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학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학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단적 영향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진로교육이 대학진학 이후의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 진로교육이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 대학적응에 작용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으로 긍정적인 학교 진로교육 경험이 구체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대학진학동기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다시 대학적응 및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학교 진로교육이 다양한 정보와 체험, 자기성찰을 통해 진로에 관한 목적의식 명확화를 지향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한 최근 대학적응이나 대학교육 성과 관련 문헌에서도 대학진학 이유에서 드러나는 대학진학동기의 역할이 중요시된다는

(Guiffrida, Lynch, Wall, & Abel, 2013; Reason, 2009) 사실도 고려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교 재학 중의 진로교육 경험과 대학진학동기, 대학진학 이후의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동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재학 중의 유용한 진로교육 경험은 능동적이며 구체적인 대학진학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능동적이며 구체적인 대학진학동기는 대학 진학 이후의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셋째,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고등학교 단계의 진로교육 경험의 직접효과와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와 양상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중등학교 진로교육의 효과

진로교육이 공교육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면서 진로교육 관련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늘었으나 초·중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진로교육의 효과를 깊이 있게 다룬 실증연구는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진로교육 분야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총 350편 논문의 주제별 분포를 분석한 정지은 외(2013)에 따르면, 2013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 등 진로발달 행동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34.7%로 가장 높은 가운데 진로교육의 효과를 다룬 논문은 매우 드물었다. 진로교육을 주제로 다룬 논문 비중은 적지 않지만 분석의 초점이 진로교육 실태 파악 및 진로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조사, 진로교육정책 개선 방안에 맞추어져 있었다(양종국, 2013; 정철영, 2002). 소수의 연구자들이 의미있는 시도를 하였으나(박소영·김지연·김상희·정단비, 2014; 주현준·이쌍철, 2013)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교육의 중·장기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중등학교 재학 시 축적한 진로 관련 경험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 진로 성과와 연계하여 분

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동일한 표집 대상에 대한 종단적 영향력 분석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매우 드물다(신희경·이종승, 2007: 72). 최근 중등학교와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을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조금씩 축적되면서 중등교육 단계 진로교육과 대학교육 단계에서 진로 발달의 관계를 분석하는 등 의미 있는 학문적 탐색이 이루어졌으나(박소영 외, 2014: 155) 아직 관련 주제를 탐색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이들 간의 관계가 명료하게 검증되지 못한 실정이다.

종단자료를 활용한 학교 진로교육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분석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효과연구의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초점을 맞추어 고교 졸업 이후의 취업 성과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어윤경·변정현, 2013; 정소영·이한주, 2014). 일반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학생의 진로발달 과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개인 배경 특성, 사회심리학적 특성, 행동 특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탐색되었으나,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교육의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이상준, 2011; 주현준·이쌍철, 2014).

국내외에서 대학진학 이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 것은 중등학교 시기의 진로교육 경험과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진로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종단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정부출연연구원을 중심으로 종단 데이터가 수집되면서 비록 소수이지만 동 주제에 관한 실증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박소영 외(2014)는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때 진로교육활동 경험에 관한 응답을 토대로 저경험 집단과 고경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들 그룹 간에 대학적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들 두 집단 간 대학적응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효과의 크기를 고려할 때 두 집단 간 실질적 차이는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한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진로교육 경험과 대학적응의 관계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변인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현준과 이쌍철(2014)은 진로교육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중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교육 경험이 진로계획, 진로행동, 자기이해, 직업태도, 대학진학 후 학과재선택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학업성취도, 학교유형, 성별, 독서 및 아르바이트 시간 등

의 영향을 통제한 후, 진로교육이 목표로 하는 다섯 개 성과변인에 진로교육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교 때 경험한 진로교육은 진로계획성과 진로개발행동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직업태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이해나 대학진학 시 학과 재선택 의지에 주는 영향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들 5개 성과변인 중 대학에서 학과 재선택 의지만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측정되었고, 나머지 변인들은 진로교육 경험과 동일한 시기에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로교육의 종단적 효과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진로교육 경험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드물지만 대학 입학 시점의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적응 간의 관계는 몇몇 연구자들이 탐색하였다(박신영 · 이동형, 2013; 신희경 · 이종승, 2007; 장경문, 2005<sup>2)</sup>). 이들 연구에서 관찰되는 공통점은 연구자들이 대학 재학 기간이 진로결정이나 진로개발에서 중요한 시기이며 긍정적인 진로개발경험을 대학적응의 전제조건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적응 간 관계 분석 시 매개변인의 존재에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대학적응에 대한 진로결정수준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박신영 · 이동형(2013)은 진로준비행동을, 장경문(2005)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신희경 · 이종승(2007)은 대학 진학에 있어 내적동기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각종 요인의 영향을 탐색함에 있어 이들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주제임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속 연구 설계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 2.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도, 대학진학동기, 학교 진로교육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는 대학교육 성과의 전조로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다(Gerdes & Mallinckrodt, 1994; Tinto, 1993). 대학교육 성과에 대해 합의된 개념 도출이나 측정변수 설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대학적응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내외 문헌에서 대학적응을 성과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박소영 외, 2014; 박승민 · 변복수, 2014; 박신영 · 이동형, 2013; 박정희 · 김홍석, 2009). 특히 급격한 환경 변화와 낯설고 다양한 과업을 마주해야

2) 신희경 · 이종승(2006)의 연구만이 관심변수와 성과변수의 측정 시기가 다른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박신영 · 이동형(2013)과 장경문(2005)의 연구에서는 관심변수와 성과변수를 동일한 시점에 측정한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하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가 중요한 주제이다. 이때 학업성취도는 대개 학업적인 적응으로 간주되며 이후 노동시장의 성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요한 대학교육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진로교육이 인생 전반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과 태도, 가치관을 계획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장석민, 2013: 3)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대학적응은 진로교육의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에 진로교육 분야 연구에서는 주로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진로성숙수준이 대학적응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탐색하였다(박신영·이동형, 2013; 신희경·이종승, 2007; 장경문, 2005).

한편 대학적응의 개념은 연구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학생이 맞이하는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정도를 포착한다. 예컨대 국내 연구자들이 대학적응 측정에 많이 활용한 Baker와 Siryk(1984)은 대학적응을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의 적응과 함께 대학에 대한 애착이나 유대 정도 등을 의미하는 대학 환경 적응 등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 학업 적응은 대학에서 요구되는 학업 수행 측면의 요구 사항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사회적 적응은 대학 내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정서적 적응은 대학에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Baker와 Siryk(1984)이 제안한 대학적응 척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네 개 구성요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대학적응을 개념화하였다.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수준의 영향변인으로서 대학진학동기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Reason(2008)이 지적하였듯이 대학교육 성과 문헌에서 대학 진학 이전의 심리적 성향이 대학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학술적 탐색은 미흡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자들은 대학 입학 시점에 학생의 사회·심리적 성향이 이후 대학생활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관심을 가졌는데 이들은 주로 대학진학동기에 주목하였다(김병찬, 2003; Guiffrida et al., 2013; Reason, 2008; Stage, 1989).

Brown과 그의 동료들은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 입학 시점에 학생이 가진 교육 목표와 자기 효능감 등 비인지적 성향을 분석 모델에서 통제한 후에는 고등학교 내신 및 대학입학시험 성적과 대학교육 성과 변인 간 직접적 상관성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는 결과를 얻었다(Brown, Tramayne, Hoxha, Talander, Fan, & Lent, 2008, Reason, 2008: 665에서 재인용). 즉 교육목표와 자기효능감이 대학교육성과에 대한 대입성적의 영향을 완전매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Stage(1989)는 구조방정식 모



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 서로 다른 대학진학동기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을 그룹으로 구분하여 학업 및 사회적 대학적응 및 학업지속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진학동기 성향이 다른 학생들 간에 학업 및 사회적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최근에는 Guiffrida와 그의 동료들이 2,520명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 진학한 동기와 학습성과 간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를 분석하면서 대학진학동기를 역량충족 동기, 관계충족 동기, 자아충족 동기 등 3개 하위 동기로 구조화하였다(Guiffrida et al., 2013). 이들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성별, 연령, 학년, 대학 입학 전 학업성취도, 부모의 수입과 교육정도 등 배경 요인 효과를 통제한 후 대학진학동기와 대학교육 성과 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역량충족 및 자아충족 동기는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와 학업 지속 의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반해 관계충족 동기는 학업 성취와는 부적인 상관성을 학업 지속과는 정적인 상관성을 갖는 등 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학교 진로교육, 대학진학동기,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도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편이다. 신희경과 이종승(2007)의 연구만이 예외적으로 대학진학동기에 주목하면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대학 만족도와 학문적 적응에 미치는 중단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때 진로결정수준과 대학 1학년 때의 대학 및 학과 만족도와 학문적 적응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과선택의 내적동기를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때 진로결정수준은 대학진학 후 만족도와 학문적 적응과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학과 선택의 내적 동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신희경과 이종승(2006)은 고등학교 때 전공 결정과 같은 진로결정 수준 보다는 어떠한 동기로 대학에 진학하는지가 대학 만족도와 학업 측면의 적응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기존의 진로교육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 못했던 진학 동기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신희경과 이종승(2007)의 연구는 두 시점에 측정한 중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때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적응 간의 관계분석을 시도했고 특히 대학학과선택의 내적동기를 매개변수로 사용했다. 이들 연구는 연구문제설계 및 연구방법 측면에서 후속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통적인 동기이론은 처벌, 규칙, 사회적 압력 또는 인정, 물질적 보상 등과 같은 외적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외적동기와 자신의 관심, 즐거움, 내면화된 신념 등과 같이 내부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내적동기로 동기를 구분하고 내적동기의 긍정적 작

용을 가정하고 있다. 신희경과 이종승(2007)은 이러한 접근법을 활용하였으나 여기에서 제한점이 관찰된다. 무엇보다도 신희경과 이종승(2007)도 지적하였듯이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구분한 전통적 동기이론 자체가 비판을 받고 있다. Pintrich와 Schunk(2002)에 의하면 현실적으로는 개인에게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는 반드시 선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에 따라 두 동기의 긍정 또는 부정적 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신희경·이종승, 2007: 80에서 재인용). 신희경과 이종승(2007)이 시도한 학과선택동기 측정에서도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구분의 모호함이 관찰된다. 이들은 학과 선택 이유로 '본인의 적성'과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이 포함된 경우 내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은 물질적 보상에 관한 동기로 볼 수 있기에 전통적 동기 이론에서 규정한 내적 동기로 명확히 분류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동기의 외재적 또는 내재적 속성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자신의 대학진학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대학진학동기의 구체성 정도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관찰되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진로교육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 이후의 적응'에 대한 '중등학교 과정의 진로교육'의 효과는 학문적으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편이다. 소수의 연구자들이 대학적응이나 대학 만족도와 진로교육의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진로교육의 효과에 대해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진로교육이 어떤 메카니즘으로 대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학적응이나 학업성취도에 대한 대학진학동기의 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Stage, 2008; Guiffrida et al., 2013; 신희경·이종승, 2007; 장경문, 2005)와 신희경·이종승(2007)에서 관찰되는 제한점에 착안하여 학교 진로교육이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하여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즉, 고등학교 때 경험한 유용한 진로교육은 명료하고 능동적인 대학진학동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형성된 능동적 대학진학동기는 대학 입학 이후 학업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학생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내적 의지를 유발하고 이에 적합한 행동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 데이터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때 대학이 요구하는 학업적,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 대학에 대한 유대감 등을 포착하는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해 통합적인 개념의 대학적응 변인을 설정하였다. 또한

통합적인 개념의 대학적응 변인 이외에 대학교육 성과로서 강조되는 학업성취도는 별도의 변인으로 구성하여 진로교육의 효과 탐색에 활용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중단교육연구2005’의 6~7차 자료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점수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교육경험이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하여 대학진학 이후의 대학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중단연구2005’는 2005년 전국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교육경험 및 학습, 인지적·비인지적 성취 수준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5년 9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은 7차년도 자료 기준 4년제 대학에 1학기 이상을 재학한 학생들이며, 이들의 고등학교 3학년 자료(6차년도 자료)와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급점수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인 진로교육 경험은 중단연구 6차년도 자료 학생 설문 5번 문항(진로관련 상담, 진로관련 강연, 대학교 및 학과 안내,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의 도움 정도)의 평균값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받은 진로교육의 도움정도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대학진학동기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와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의 두 문항의 평균값으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대학진학동기를 가진 정도를 나타낸다. 대학진학동기에 대한 진로교육 경험의 영향을 통제하는 변인으로 학생성별과 부모의 학업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점수(이하 수능등급)를 활용하였다. 학생성별은 여학생을 1, 남학생을 0으로 하는 더미변인이며, 부모의 학업지원은 6차년도 학생 설문 14번문항인 “집안학습분위기 조성”, “공부방법조언”, “성적관리”, “과외, 학원정보수집”, “공부위한 지출 아끼지 않음”, “평소생활, 일정 관리” 등의 6문항의 평균값이다. 수능등급은 학생들의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의 수능등급점수의 평균값으로, 수능등급이 낮을수록 1등급에 가깝기 때문에 수능등급이 낮을수록 수능성적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이며, 대학적응은 7차년도 대학생 설문 22번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이유 확신”, “학업관련 교수의 기대 이해” 등의 9문항의 평균값(역채점 포함)이다. 학업성취도는 7차년도 자료 중 대학생 설문 16번으로 1학년 1학기 평균평점을 대학별 평점 기준으로 나누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인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기술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분석 변인 설명

	변인명	변인 설명	신뢰도
독립변인	진로교육 경험	6차 학생 설문 5번 5문항 (진로관련 상담, 진로관련 강연, 대학교 및 학과 안내,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의 도움 정도)	.629
매개변인	대학진학 동기	6차 학생 설문 20번 (3, 4번문항)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r=.497
통제변인	학생성별	여학생: 1, 남학생:0	N/A
	부모 학업지원	6차 학생 설문 14번 6문항 ("집안학습분위기 조성", "공부방법조언", "성적관리", "과외, 학원정보수집", "공부위한 지출 아끼지 않음", "평소생활, 일정 관리")	.779
	수능등급	수능등급점수	N/A
종속변인	대학적응	7차 대학생 설문 22번 (역채점 포함) ("대학진학에 대한 이유 확신", "학업관련 교수의 기대 이해" 등의 9문항)	.609
	학업 성취도	7차 대학생 설문 16번 (1학년 1학기 평균평점의 100점 환산 점수)	N/A

<표 2> 분석 변인의 기술통계치

	학생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진로교육 경험	2,100	0.00	5.00	1.97	1.00
대학진학동기	2,085	1.00	5.00	4.08	0.72
학생성별	2,151	0.00	1.00	0.53	0.50
부모학업지원	2,102	1.000	5.00	3.03	0.68
수능등급	1,967	1.00	9.00	3.87	1.39
대학적응	1,813	1.14	5.00	2.91	0.48
학업성취도	1,796	2.22	100.00	73.52	13.48

## 2.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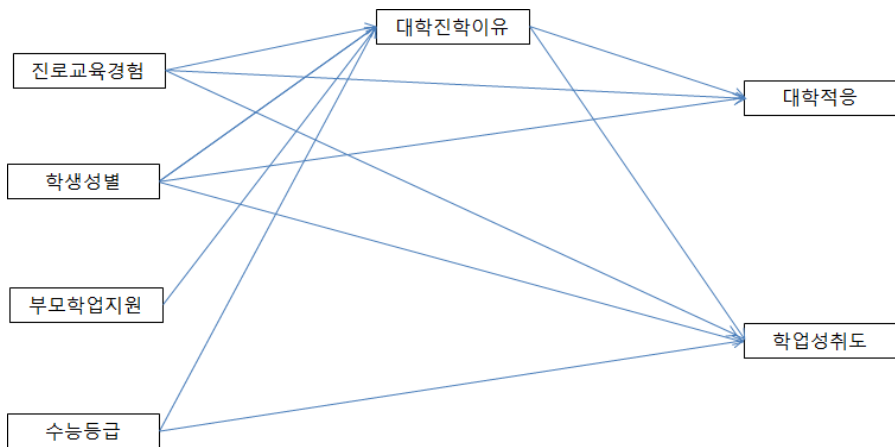
### 가. 진로교육 경험과 대학진학동기 요인에 대한 기초분석

우선 진로교육 경험과 대학진학동기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생성별과 부모의 교육지원, 수능등급, 진로교육과 대학진학동기, 그리고 대학진학 이후의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진로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능동적인 대학진학동기를 가질수록 대학적응이나 학업성취도가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 나. 진로교육 경험과 대학진학동기,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탐색

다음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한 진로교육이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대학진학 이후의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학생성별과 부모지원, 수능성적이 대학진학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들 변인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분석 모형



위의 경로모형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 중의 진로교육 경험은 학생의 대학진학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대학 진학 이후의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 등의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교 진로교육 경험은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대학진학동기에 영향요인으로 학생성별과 부모의 학업지원, 그리고 수능등급이 모형에 포함되어, 대학진학동기에 대한 진로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통제변인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교 진로교육 경험은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진로교육 경험과 대학진학동기 관련 요인

고교 진로교육 경험과 대학진학동기, 그리고 대학진학 이후의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이전에, 진로교육 경험과 대학진학동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변인을 구성하고, 이들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교육 경험과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업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교육에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하여 학생성별과 수능등급은 진로교육 정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진로교육 경험과 가장 큰 상관을 가진 변인은 부모학업지원이었다. 다음으로 대학진학동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진로교육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대학진학동기가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의 대학진학동기가 좀 더 구체적이었다. 부모가 학업을 지원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수능등급이 높을수록 대학진학동기가 구체적이었다. 이 중 대학진학동기와 가장 큰 상관을 가진 변인은 수능등급이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받은 진로교육과 대학입학 이전 시점의 대학진학동기가 대학 입학 후의 대학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대학적응 정도가 높았으나, 고교 진로교육과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대학진학동기와 대학적응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

면, 대학진학의 동기가 구체적인 학생일수록 대학 진학 이후 대학 적응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 중에서 대학진학동기와 더 큰 상관을 가지는 변인은 대학적응이었다.

<표 3> 진로교육과 대학진학동기의 영향요인 및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의 상관

	진로교육 경험	대학진학 동기	학생성별	부모 학업지원	수능등급	대학적응
대학진학동기	.081**	1				
학생성별	-.022	.065**	1			
부모학업지원	.165**	.104**	-.075**	1		
수능등급	-.013	-.133**	.014	-.183**	1	
대학적응	.108**	.153**	-.046*	.112**	.008	1
학업성취도	-.046	.104**	.153**	-.005	-.133**	.302**

## 2. 진로교육 경험과 대학진학동기,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기초 분석을 바탕으로 진로교육 경험과 대학진학동기, 그리고 대학진학 이후의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교육과 대학진학동기, 그리고 대학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모형의 적합도는  $\chi^2=20.365$  ( $df=3$ ,  $p=.000$ )으로 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원가설을 기각하였지만 사례수가 1,771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적 적합도지수를 산출한 결과  $CFI=.950$ ,  $RMSEA=.057$  등으로 경로모형이 자료에 대체로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로교육 경험과 대학진학동기, 그리고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경로모형의 분석결과가 다음 [그림 2]에 제시되었다. <표 5>에는 모형에 포함된 경로의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를 표시하였으며 [그림 2]에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하였고,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구체적인 표준화 경로계수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진로교육은 대학진학동기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단계에서 경험한 진로교육에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학생일수록 대학진학동기가 구체적이고 능동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성별과 부모의 학업지원,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점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효하였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경험한 진로교육이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동기를 형성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진로교육의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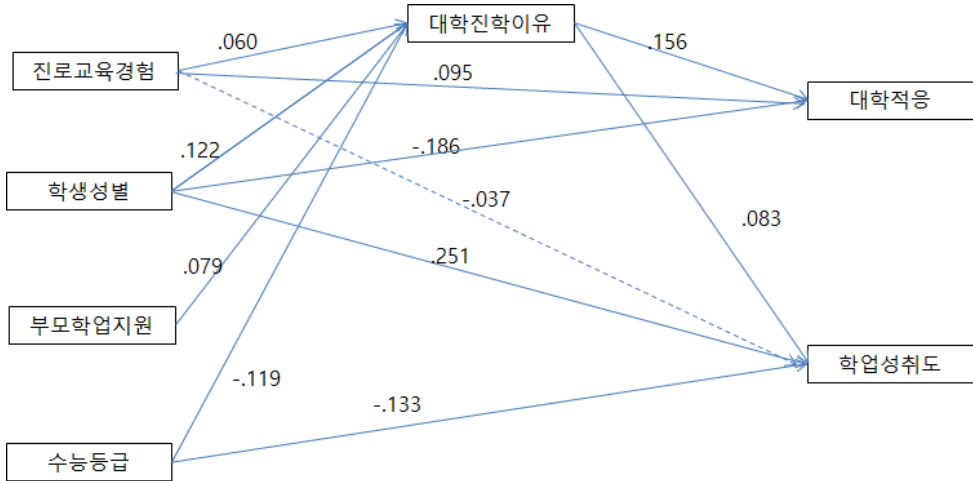
둘째, 대학진학동기는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대학입학 이전에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대학진학동기를 가지고 있을수록 대학진학 이후의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셋째, 고교 시절 경험한 진로교육이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속변인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교육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 외에도 직접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대학적응에 대한 진로교육의 간접효과를 쪼개어보면, 진로교육이 높을수록 대학진학동기가 높았으며, 대학진학동기가 높을수록 일반적인 대학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학적응에 대한 학생성별의 영향을 고려한 후에도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진로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면,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했을 때 나타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학업성취도에 대한 진로교육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대학진학동기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진로교육의 효과를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업성취도의 주요 영향요인인 학생성별과 수능등급을 통제하고 나서도 유의미하였다.

위의 결과를 정리하여보면, 대학적응에 대한 진로교육의 효과의 경우,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 외에도 직접효과 역시 유의미하였으나, 학업성취도에 대한 진로교육의 효과의 경우,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대학진학동기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진로교육의 효과를 완전매개하였다.



[그림 2] 진로교육 경험-대학진학동기-대학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경로모형 분석 결과



<표 4> 표준화 경로계수: 진로교육과 대학진학동기,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경로분석모형

경로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p-value
대학진학동기 ← 진로교육 경험	0.060*	0.024	2.517	0.012
대학진학동기 ← 학생성별	0.122**	0.046	2.654	0.008
대학진학동기 ← 부모학업지원	0.079***	0.024	3.268	0.001
대학진학동기 ← 수능등급	-0.119***	0.024	-5.005	0.000
대학적응 ← 대학진학동기	0.156***	0.025	6.304	0.000
대학적응 ← 진로교육 경험	0.095***	0.025	3.768	0.000
대학적응 ← 학생성별	-0.186***	0.049	-3.761	0.000
학업성취도 ← 대학진학동기	0.083***	0.025	3.303	0.001
학업성취도 ← 진로교육 경험	-0.037	0.025	-1.455	0.146
학업성취도 ← 수능등급	-0.133***	0.024	-5.548	0.000
학업성취도 ← 학생성별	0.251***	0.050	4.986	0.000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진로교육 경험의 직간접효과를 <표 5>와 같이 검증하였다. 진로교육 경험은 대학적응에 대해 유의한 정(+)적 직접효과를 가지지만( $\beta = .095, p = .000$ ), 동시에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09, p = .020$ ). 구체적인 매개경로를 살펴보면 진로교육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대학진학동기가 구체적이고,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대학진학동기로 인해 대학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대학진학동기를 통한 간접효과( $\beta = .005, p = .046$ )는 유의미했으나, 직접효과( $\beta = -.037, p = .146$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 $\beta = -.032, p = .209$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도에 대한 진로교육 경험의 직·간접효과

	대학적응			학업성취도		
	$\beta$	s.e.	p-value	$\beta$	s.e.	p-value
총효과	0.104***	.025	.000	-.032	.025	.209
직접효과	0.095***	.025	.000	-.037*	.025	.146
간접효과	0.009*	.004	.020	.005*	.002	.046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 론

지난 수년 간 ‘대학 입학’에 주로 초점을 두었던 교육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등교육 정책에서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대학교육 정책에서는 대학생의 역량강화와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6~7차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교육 경험, 대학진학동기, 대학진학 이후의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즉, 고등학교 때 받은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수록 능동적이며 구체적인 대학진학동기가 형성되는지, 이는 대학생의 전반적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진로교육과 대학진학동기와 관계된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학생 성별, 가정배경, 수능등급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초 분석에 근거하여 대학 입학 전에 경험한 진로교육은 명료하고 능동적인 대학진학동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대학진학동기는 대학 입학 이후 학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대학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가정하고 이를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한 진로교육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대학진학동기가 구체적이며 능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업지원이 높을수록 진로교육에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진학동기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업지원이 높을수록, 수능등급이 높을수록 대학진학동기가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교육과 대학진학동기, 대학적응은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으나, 고교 진로교육과 대학 진학 이후의 학업성취도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대학진학동기는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 모두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다음으로 경로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학 입학 전 진로교육은 대학진학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영향은 부모학업지원과 수능등급, 성별 차이에 따른 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유효하였다. 둘째, 대학진학동기는 대학 진학 이후의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이들 종속변인에 대한 진로교육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유효하였다. 셋째, 대학적응에 대한 진로교육의 영향은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하는 간접 효과 이외에 직접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취도에 대한 진로교육의 효과는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진로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이러한 연구결과의 의미와 제언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진로교육 경험이 구체적이며 능동적인 대학진학동기 형성을 통하여 대학적응과 대학학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는 현행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이 내실 있게 수행될 경우 제한적이거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 진로교육 활동 정도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대학적응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박소영 외(2014)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지만 고교 시기의 진로 관련 특성이 대학적응이나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적성이나 진로를 고려한 학과선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학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희경·이종승(200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는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교 진로교육 효과를 분석할 때, 단순한 효과 여부보다는 학교 진로교육이 학생에게 어떤 변화를 주어 대학에서의 성과 등 이후 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현행 진로교육은 대학입시 정보제공이나 적성검사 등에 치

우쳐 운영되고 있어 교육내용 구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학교 진로교육이 대학진학 이후 학업 수행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대단히 고무적이며,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진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할 학생 집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수능등급이 높을수록 진로교육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으므로, 가정환경이 열악하거나 수능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적성과 흥미를 찾고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진학동기는 진로지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가구소득 높을수록, 부모지원정도가 높을수록, 수능성적이 높을수록 대학진학동기가 구체적이라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남학생, 가구소득이나 부모지원정도가 낮은 학생, 수능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진로교육 정책 설계나 학술적 측면에서 대학진학동기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 기록된 것처럼(신희경·이종승, 2007), 구체적이며 능동적인 대학진학동기가 높은 수준의 대학적응과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대학교육의 실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학생이 대학에 잘 적응할수록 대학 이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대학적응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즉 학점은 학문적인 대학적응의 지표일 뿐 아니라,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와도 매우 큰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요인이다. 대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수능성적과 학생성별을 고려하더라도 대학진학동기가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성공적인 대학생활 결정요인으로서 대학진학동기의 학술적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대학입학전형과 대학적응 간의 관계를 탐색한 일부 선행연구(김준엽 외, 2013)는 대학 입학 전에 대학진학 목적과 학업의 방향을 고민하고 탐색할 기회를 가진 학생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이처럼 중요한 대학진학동기가 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나마 밝혔다. 즉, 진로교육은 대학입학 전 진학의 목적 및 학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진학 후 보다 내실있게 대

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요컨대, 인생 전반의 진로 개발이라는 맥락에서 대학진학의 목적과 대학진학 후 어떤 공부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학교 진로교육의 중요한 축으로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연구가 재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자료와 대학교 자료, 그리고 수능 자료가 모두 연계된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진로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집된 자료를 재분석하는 연구로서, 대학적응에 대한 기존 연구의 논의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대학적응이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의 구조적, 환경적 특성이나 교수-학습 과정의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후 연구를 통하여 고교 시절의 진학지도와 대학입학동기가 대학 적응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학의 구조적 특징이나 대학의 교육적 개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교육적 개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병찬(2003). 「사범대생들의 사범대학 진학동기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57~83쪽, 한국교원교육학회.
- 김봉환 · 김병석 · 정철영(2000).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 김소영 · 홍세희(2013).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의 관련성 검증」,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제14권 제1호, 93~116쪽, 한국조사연구학회.
- 김승보 · 진미석 · 한상근 · 이지연 · 이윤진(2013). 『초·중등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준엽 · 박소영 · 신혜숙 · 민병철(2013). 「대학에서의 학습 및 활동을 중심으로 본 입학사정관제 성과」, 『아시아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29~50쪽,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박선희 · 박현주(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6권 제1호, 67~81쪽, 한국심리학회.
- 박소영 · 김지연 · 김상희 · 정단비(2014). 「고등학교 진로교육경험에 따른 대학적응 차이 분석」,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7권 제3호, 151~176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승민 · 변복수(2014).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의 입학 후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27권 제1호, 29~56쪽,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 박신영 · 이동형(2013).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 효과」, 『직업교육연구』, 제32권 제1호, 23~38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 박정희 · 김홍석(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1호, 125~144쪽, 한국청소년학회 .
- 송인섭 · 김봉환 · 조대연 · 임언(2005). 『교과통합형 진로지도 모형개발과 적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희경 · 이종승(2007). 「내적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학문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제45권

- 제1호, 71~100쪽, 한국교육학회.
- 양종국(2013). 「한국진로교육의 오늘: 현황과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제37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1~46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어윤경·변정현(2013).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따른 학업성취도, 학교폭력, 진로성숙도의 변화: 일반계 고교와 특성화 고교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4권 제6호, 3477~3498쪽, 한국상담학회 .
- 이상준(2011).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참여결정요인과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대학 전공학과 선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7권 제2호, 385~408쪽,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지연(2013). 「한국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모색」, 『제2회 진로교육 국제포럼 자료집』, 178~179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최동선(2005). 「초·중등 진로교육의 현황과 혁신 방안」, Working Paper 2005년 5월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경문(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6권 제1호, 185~196쪽, 한국상담학회 .
- 장석민(2001).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3). 「한국 진로교육의 태동과 형성」, 『한국진로교육학회 제37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9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정소영·이한주(2014).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분석 :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제28권 제4호, 1~29쪽, 한국상업교육학회 .
- 정지은·주홍석·정철영(2013). 「진로교육연구 학술지의 연구 동향」,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1호, 1~20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정철영(2002).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운영 체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 『진로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1~28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 주현준·이쌍철(2013).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 분석」, 『교육종합연구』, 제12권 제2호, 157~180쪽, 전라북도교육청.
- Baker, R. &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pp. 179~189.
- Brown, S., Tramayne, K., Hoxha, D., Talander, K., Fan, X., & Lent, R.(2008).

-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persistence: A meta-analytic path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2, pp. 298~308.
- Gerdes, H. & Mallinckrodt, B.(1994). “Emotional,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of Reten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72 No.3, pp. 281~288.
- Guiffrida, D., Lynch, M. Wall, A., & Abel, D.(2013). “Do Reasons for Attending College Affect Academic Outcomes? A Test of a Motivational Model from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54 No.2, pp. 121~139.
- Pintrich, P. & Schunk, D. (2002).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2nd ed.)*, NJ: Prentice Hall.
- Reason, R. (2009). “An examination of persistence research through the lens of a comprehensive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50 No.6, pp. 659~682.
- Stage, F. (1989). “Motivation, academic and social integration and the early dropou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26 No.3, pp. 385~402.
- Tinto, V.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2nd ed.)*,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

Investigating Effects of Career Education at High School on Overal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at Colle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ge-Going Motivation

Jeung Yun Choi

Hye Sook Shin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more useful career education experience at high school leads to developing more active and specific motivation for college-going, which in turn leads to better adjustment to college both academically and social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s path analysis, using data drawn from the 6th and 7th waves of the 2005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The study finds that more useful career education experience at high school has a direct effect on more active and specific motivation for college-going, which is valid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confounding effect of gender, parental support, and college aptitude test result. It also shows that useful career education experience at high school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better adjustment to colleg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 of college-going motivation. Yet, this study finds that career education experience at high school has in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academic performance in college; it only indirectly affects academic performance, the effect of which is mediated by reasons for going to college.

**Key words** : effects of career education, college adjustment, college-going motivation

